국 어

1.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된 낱말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 ① 뉴턴, 슬로바키아, 도이칠란드, 링거
- ② 도스토옙스키, 플레시, 로브스터, 버저
- ③ 콘사이즈, 파일, 리더십, 케첩
- ④ 코즈모폴리턴, 스프링클러, 콘셉트, 카펫
- ⑤ 앙코르, 타깃, 심포지움, 플루트

2. 다음 중 발음 표기가 옳은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 ① 늑고 [늑꼬], 은혜 [은혜], 앓는 [알른]
- ② 맑지 [막찌], 의견란 [의:결란], 발이랑 [반니랑]
- ③ 반창고 [반창고], 얹지 [얹:찌], 계시다 [계:시다]
- ④ 쌓네 [싼네], 밟다 [밟:따], 이글이글 [이글이글]
- ⑤ 똥네 [똥네], 값있는 [가빈는], 망막염 [망망님]

3. 다음 중 문장의 구조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이 비가 그치면 날씨가 더워질 듯하다.
- ② 그는 고향에 가더라도 큰집에 들르지 않는다.
- ③ 내일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겠습니다.
- ④ 형은 동생이 한 잘못을 감싸 주었습니다.
- ⑤ 어떤 일이 생겨도 내일은 꼭 완성하겠습니다.

4.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 ① 쿵더쿵, 허우대, 선두리, 똥똥이
- ② 풀소, 적이, 생일빔, 고인돌
- ③ 맨송맨송, 뜨문뜨문, 깔보다, 틈틈히
- ④ 눈썹, 발뼉꿈치, 행네기, 마방집
- ⑤ 깍쟁이, 구두주걱, 봉죽, 새치름하다

5. 다음의 특성을 지닌 어휘 관계만으로 묶인 것은?

- 각각의 의미 영역이 상호 배타적이다.
- 한쪽을 부정하면 곧 다른 쪽을 긍정하는 것이 된다.
-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비교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 ① 남성-여성, 알다-모르다, 빠르다-느리다
- ② 높다-낮다, 밝다-어둡다, 가다-오다
- ③ 살다-죽다, 참-거짓, 있다-없다
- ④ 아래-위, 부모-자식, 주다-받다
- ⑤ 좋다-싫다, 깨끗하다-더럽다, 맛다-틀리다

6.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유형의 잘못을 범한 문장은?

국어는 앞뒤 문맥을 통하여 성분의 호응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한 성분 생략이 자유롭다. 문제는 이러한 성분 생략이 문맥 호응상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따금 성분 생략이 아닌 성분 실종으로 변질되어 비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어 구조상 의미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성분 생략은 국어 문장 구조의 간결성, 함축성, 경제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성분 간에 호응을 어긋나게 하면 성분 실종이 되므로 성분 생략과 성분 실종은 구별해야 한다.

- ① 학문을 따지고 의심스럽게 보고 다시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 ②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 ③ 토의 시험에 응시하실 분들은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십시오.
- ④ 다솜이의 여름방학 숙제로 제출한 그림은 특이했다.
- ⑤ 재원과와 철현이는 지난달에 여행을 다녀왔다.

7. 다음 설명을 반영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하는데,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다. 접두사는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일부 접두사의 경우 관형사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접두사는 결합이 제한적인 반면에 관형사는 결합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이 다르다. 접두사는 붙여 쓰고 관형사는 띄어 쓴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상생활에서 띄어쓰기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① 누구나가 새옷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조금씩 강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봄이 찾아왔다.
- ③ 거기에 옷돈을 주고라도 살 만한 물건이 있는가?
- ④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만큼 먹어라.
- ⑤ 아영이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 배, 귤등이다.

8. 다음 글을 참고할 때 동일한 단어 형성법으로 구성된 단어들로만 묶인 것은?

그 짜입새가 단일한 단어를 단일어(simple word)라 하고, 복합적인 단어를 복합어(complex word)라 한다. 복합어는 다시 어휘 의미를 강하게 띠는 요소끼리 결합한 합성어(compound word)와 어휘 의미를 가진 요소에 접두사와 접미사와 같이 형식 의미를 갖는 요소가 결합한 파생어(derived word)로 나눌 수 있다.

- ① 몹시, 새빨갳다, 높푸르다, 돌아가시다
- ② 먹이, 노리개, 찌개, 김푸르다
- ③ 잡아먹다, 지우개, 놀이, 참깨
- ④ 휘두르다, 기와집, 참답다, 슬기롭다
- ⑤ 군식구, 끝내, 정답다, 애호박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풀이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을 잘 짓는 자는 아마 방법을 잘 알 것이다. 비유컨대 글자는 군사요, 글 뜻은 장수요, 제목이란 적국이요, 고사(故事) 인용이란 전쟁터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요, 글자를 엮어서 구절을 만들고 구절을 모아서 문장을 이루는 것은 대오를 이루어 진을 치는 것과 같다. 운율에 맞추어 읊고 멋진 표현으로 빛을 내는 것은 징과 북을 울리고 깃발을 휘날리는 것과 같으며, 문구 앞뒤의 조율이란 봉화요, 비유란 유격이요, 억양 반복이란 맞붙어 싸워 서로 죽이는 것이요, 주제를 소화하여 마무리하는 것은 먼저 성벽에 올라가 적을 사로잡는 것이요, 함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란 늑문을 사로잡지 않는 것이요, 여운을 남기는 것이란 군대를 정돈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 ㉠ 옛날의 책이나 일화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
- ㉡ 같은 의미라도 말을 잘 다듬어 표현하는 것
- ㉢ 내용을 잘 간과하여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 ㉣ 주제를 드러내어 읽는이에게 여운을 남기는 것
- ㉤ 앞뒤의 논리가 조화를 이루어 의미가 선명해지는 것

10.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우리 민족사를 일별하여 문화부흥의 중대한 전환기를 찾으려면 대개 세 시기를 들 수가 있으니, 통일신라와 세종성대와 갑오경장이 그것이다. (㉠) 삼국시대의 불교의 전래라든지 여말의 송유학(宋儒學)의 수입이며 영조 이후 서학·북학의 섭취를 비롯한 군소의 전환기가 일대의 문운을 율흥(蔚興)시킨 바 여러 번 있었다 해도, 그는 실상 이 3대 전환기의 바탕을 이루는 역사적 작은 기복이요, 그 뚜렷한 분수령은 아무래도 앞에 든 세 시기에다 조정(措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이 세 시기는 한결같이 국민 정신 발흥의 정점을 이룬 시기요, 또 다 같이 우리 민족의 어문 운동사에 획기적인 빛을 나타낸 시기이다. (㉢) 어문 운동의 획기적인 대두가 국민 정신 발흥의 시기에 일치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시사를 주는 바 있다.

㉠	㉡	㉢
① 그런데 - 물론 - 따라서		
② 물론 - 다시 말하면 - 그러므로		
③ 그러나 - 즉 - 이와 같이		
④ 물론 - 그런데 - 이와 같이		
⑤ 그런데 - 즉 - 따라서		

11. 다음 중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이제 늘보난 세간 전답 다 차지하고 저 혼자 호의호식하며 제 부모 제사를 지내어도 제물은 아니 작만하고 ㉠대전으로 노코 지내난대 편 갑이면 편 갑이라, 과실 갑이면 과실 갑이라 각각 써서 버려 놔코 제사를 ㉡철상 후에 하난 말이, “이번 제사에도 아니 쓰노라 아니 쓰노라 하엿건만 황초 갑 오 풀은 지정무처일세.” 하난 텃하의 몸술 놓이, 일일은 생각하니 홍보에 가속을 내 여쭙치면 양식도 만이 엿고 ㉢용처도 덜할지라. 저의 부부 의론하고 홍보를 불너 일은 말이, “형데라 하난 것은 어려서난 갖치 살되 실가를 갖춘 후난 각기 생애하야 사난 것이 썩썩한 법이니 너난 처자를 다리고 나가 살나.” 홍보 째잡 놀나 울며 왈, “형데난 슈죽 갖흐니 우리 단 두 형데 ㉣각산하야 살면 돈목지의 업스리니, 형장은 다시 생각하옵소서.”

㉠	㉡	㉢	㉣
① 代錢 撤床 用處 各産			
② 垚田 徹狀 庸處 各算			
③ 代錢 撤床 用處 各散			
④ 臺前 徹床 庸處 各算			
⑤ 垚田 撤狀 用處 各散			

12. 다음 중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그 저서는 저자의 해박함을 방증하는 역작이다.
그 논리의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해 보십시오.
- ㉡ 식당 앞에 ‘안주 일체’라는 문구가 보였다.
면회 시간 외에 출입을 일절 금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 ㉣ 사랑과 동정을 혼동하지 마세요.
언어생활의 혼돈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은 자제하자.
- ㉤ 그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굳게 결심했다.
지긋이 나이 들어 보이는 중년 신사의 중후함이 보기 좋다.

13. 다음 중 어휘 사용의 측면에서 옳은 문장으로만 묶인 것은?

ㄱ. 일이 돌아가는 걸 보니 무슨 사달이 나기는 날 것 같다.
 ㄴ. 우리나라 토종 식물들의 서식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ㄷ. 경기 침체로 빌라와 연립주택의 경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ㄹ. 자신을 밝히지 않고 남을 도와왔던 화제의 장본인을 소개하겠습니다.

- ① 없음
- ② ㄱ
- ③ ㄱ, ㄴ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14. 다음의 「관동별곡」을 읽고 작품의 순서를 배열할 때, 옳게 배열된 것은?

- (가)강호에 병이 깊피 뉘님의 누엇더니
관동 팔부 위에 방편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망극하다.
- (나)회양 네 일흠이 마초야 7 특식골
급당유 풍츠를 고터 아니 불게이고
영둥이 무사 호고 시절이 삼월인 제
화천 시내길히 풍악으로 버더 이다.
- (다)쇼양강 너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말고
고신거국에 바 밭독 하도 할싸
동스 7함 게오 새와 북관당의 올라호니
삼각산 데일봉이 호 막면 비리로다.
- (라)궁왕 대궐 터희 오작이 지지피니
천고홍망을 아나 다 물이 나다.
- (마)연츄문 드리드라 경회 남문 바라보며
하직고 물너나니 옥질이 알포 쳤다
평구역 7 울글 라 후슈로 도라드니
섬강은 어디메요 티악이 여기로다.

- ① (가) - (나) - (다) - (라) - (마)
- ② (가) - (다) - (나) - (마) - (라)
- ③ (가) - (다) - (라) - (마) - (나)
- ④ (가) - (마) - (나) - (다) - (라)
- ⑤ (가) - (마) - (다) - (라) - (나)

15. 다음은 국어의 부정(否定)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른바 부정소라고 불리는 ㉠부정 부사나 부정 서술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밖에도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부정의 뜻을 가지는 어휘를 이용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더욱이 우리말에는 ㉣부정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부정소를 사용하였더라도 의미상으로는 긍정인 경우도 있다.

- ① ㉠: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 ② ㉡: 이번 계획은 너무나 비교육적이다.
- ③ ㉢: 나는 그녀의 마음을 잘 모른다.
- ④ ㉣: 제가 어찌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⑤ ㉤: 그가 이번 일을 그렇게 못 하지는 않았다.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일찍이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단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마침 주변에 있던 별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날아와서는 머리를 쳐박고 단술 맛을 보는데,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계속하더니 단술 독에 거의 빠질 지경이었다. 내가 이를 안타까이 여겨 손을 내저어 쫓았더니 별은 쫓기어 날아갔다. 그러나 별은 날아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하다가 끝내 날개가 젖어 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차마 술을 버리고 날아가지 않아 얼마 후 술독에 빠져 죽고 말았다.

아! 별은 미물일 뿐이다. 미물이 어찌 그리도 술을 좋아하다가 끝내 제 몸을 술독에 빠뜨려 죽는 지경에 이른단 말인가? 처음에 내가 손을 내저어 쫓았을 때 날아갔더라면 진실로 ㉠날개가 젖는 화(禍)는 없었을 것이다. 날개가 젖었을 때 깨닫고 날아갔더라면 또한 어찌 ㉡술독에 빠져 죽는 화가 있었겠는가? 처음에는 날아가지 않았고, 중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빠져 죽고 말았으니, 슬프다!

나 또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이 별의 일을 살펴서 나의 경계할 거울을 삼노라.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은 욕심을 지니고 있고 또 그것을 능히 절제하지 못하여 그 본연의 마음을 잃게 되고, 마침내는 그 본성과 목숨까지 잃는 데에 이르게 되나니, 어찌 유독 술만이 그러할 뿐이리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여 ㉣간직하노니, 내가 ㉤대야나 그릇, 안식, 지팡이를 대할 때마다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16. ㉦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季布一諾
- ② 以一警百
- ③ 遼東之豕
- ④ 泣斬馬謖
- ⑤ 前車可鑑

17. 다음에서 한자어만 제시한 것은?

- ① a
- ② a, c
- ③ c
- ④ c, d
- ⑤ d, 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 어귀에 ㉠약국이 하나 있다. 몇 년 사이에 주인이 세 번쯤 바뀌었는데, 이번에 간판을 건 사람은 꽤 오래 하고 있다. 어떤 일인지 먼저와는 달리, 약국 안 의자에는 동네 사람들이 늘 모여 앉아 있곤 한다. 지나다 보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더분한 인상의 여주인이 사람들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약국 규모도 점차 늘어가는 듯하다.

그 자리에 처음 ㉡약국 간판을 건 사람은 중년 여자였다. 혼자 살고 있다는 그녀는 느지막하게 약국의 문을 열었다가 저녁에는 일찌감치 닫고는 하였다. 가끔 둘러 보면, 입고 있는 가운은 술기가 너저분해 보이고, 약장 안도 제대로 정돈돼 있지 않아서 왠지 어수선했다. 지나는 말로 이사할 생각이냐고 하면, 그저 웃기만 했다. 동네 사람들은 믿음이 안 갔던지, 이 약국을 지나 한참 내려가야 하는 곳으로 약을 사러 가고는 하였다. 그러더니 어느 날, 어수선했던 약국은 문을 닫았다.

오래가지 않아서 새로운 이름을 걸고 ㉢약국의 문이 다시 열렸다. 주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듯싶은 자매였다. 그들은 늘 흰 가운을 단정하게 입었고, 약국 안도 깔끔하게 정돈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 고전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약국의 문은 다시 내려졌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선뜻 발을 들여놓기에 주춤거리는 분위기였던 모양이다.

닫혀진 약국의 간판 한쪽이 처진 채 계절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약국 간판이 반듯하게 다시 걸렸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안으로 동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는 것 같았다. ㉣약국 안에 놓인 긴 의자는 비어 있는 날이 드물었다. 어느 때는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대추나무집 안 노인이 앉아 있기도 하고, 때마다 낮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그 약국 여주인을 내가 처음 만난 것은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날, 시내에서부터 머리가 아파 집으로 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다. 반갑게 맞아 주는 그녀에게 두통약을 달라고 했더니,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찬 보리차를 꺼내 한 컵 따라 준다. 그러면서 되도록 약은 먹지 말라고 한다. 생각지 않은 처방에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약국을 나와 집으로 오는데, 더위 속에서 한 줄기 소나기를 만난 듯 심신이 상쾌해졌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그녀와 허물없는 이웃이 되었다.

외출을 하거나 산책을 나갈 때면 그 ㉤약국을 지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유리문 안으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녀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약만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굶은일, 기쁜 일들을 털어놓는다. 그렇다고 그녀가 전문 상담역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웃의 일을 자신의 일인 듯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것이다.

약을 팔려고 애쓰지 않는 약사. 그녀는 약으로만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들을 치유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 약국은 날로 번창하는 것 같다.

18. ㉠~㉤ 중 지시하는 의미가 동일한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19. 다음 단락을 논리적으로 의미가 잘 통하도록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일반적으로 도서는 인류의 가장 우수한 지성인, 예지자들의 두뇌의 총화를 축적한 저장고라 하겠다. 그 속에는 인문 과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문학, 미술, 음악 등 학술과 예술에 관한 것은 물론, 기타 취미와 오락 등 인간 생활에 관계된 것으로 없는 것이 거의 없다.

(나) 모든 일은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 그 방면의 서적 중에서 우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용과 차례 등에 의하여 선택해서 읽어 볼 일이다. 이와 같이 하기를 수습 권 하면, 자연히 그 양부(良否)를 판단하여 가려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가 요구하는 분야에 능통한 선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편이 가장 손쉽고 편리하지만, 이것은 어느 경우나 가능한 일은 아니요, 또 타당한 일도 아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다.

(라) 학문의 연구는 이와 같이 하여 점점 깊이 들어가고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니,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노력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결코 아낄 것이 아니다. 매사가 정성과 노력을 안 들이고 공(空)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노력을 들이면 그 노력은 결코 허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그 노력의 효과는 언젠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거두어지게 마련이다.

(마) 요는 이와 같이 많은 도서 중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요구하는 서적을 찾아내며, 또 어떻게 하면 그 종류 중에서 가장 우량한 것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문제된다. 사람도 많으면 그중에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듯이, 서적도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는 양서도 있고 악서도 있다. 그리하여 그 많은 도서 중에서 양서를 골라 내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 ① (가) - (다) - (라) - (마) - (나)
- ② (가) - (마) - (나) - (다) - (라)
- ③ (가) - (마) - (다) - (나) - (라)
- ④ (나) - (다) - (가) - (마) - (라)
- ⑤ (나) - (라) - (마) - (다) - (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뢰질은 네 개의 엮으로 나뉘는 뿐 아니라 좌우 반구로도 나뉜다. 우반구는 신체의 왼쪽 근육을 통제하며 좌반구는 오른쪽 근육을 통제한다. 그러므로 한쪽 뇌가 손상되면 반대쪽 신체 기능이 영향을 받는다. 좌우 양쪽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각각이 정해진 기능들을 통제하는 신경조직을 갖고 있다. 인간의 경우 보통 뇌의 좌뇌가 언어를 관장한다. 사실 오른손잡이 중에 95퍼센트에서 좌뇌가 언어를 관장한다. 왼손잡이 60~70퍼센트도 마찬가지다. 그렇다. 95퍼센트의 오른손잡이들이 좌뇌를 많이 사용하고 60~70퍼센트의 왼손잡이들도 좌뇌를 많이 사용한다.

(나)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는 친구가 회사 야유회에서 벌인 토론에서 당신 편을 들어주었다. 모임을 마치고 함께 나오면서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 “사랑한다. 오늘 편들어 줘서 정말 고마워.” 여기서 좌뇌만 기능한다면 당신은 곤란해질 수 있다. 당신과 친구가 모두 미혼일 때는 더더욱 곤란하다. 하지만 친구의 좌뇌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도 우뇌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분위기와 의미를 알아챈다.

(다) 좌뇌와 우뇌는 신경섬유로 이루어진 두꺼운 띠를 활용하여 서로 연락을 하며 이들 신경섬유 다발을 뇌돌보(뇌량)라고 한다. 뇌돌보를 좌뇌와 우뇌라는 아주 강력한 컴퓨터들을 연결해 주는 거대한 케이블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는 좌우 뇌를 모두 사용한다. 좌뇌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말을 해독한다. 말하자면 좌뇌는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법원 속기사다. 우뇌는 번역가다. 감정을 관장하는 우뇌는 어조, 암시, 심층적인 의미 등을 인식한다. 결국 좌뇌와 우뇌가 합쳐져서 우리는 말 자체뿐만 아니라 화자가 말하는 의도까지 이해한다.

(라) 전적으로 좌뇌가 우세하거나 전적으로 우뇌가 우세한 그런 사람은 없다. 하지만 주로 쓰는 우세한 손, 눈, 발, 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도 한쪽 뇌가 다른 뇌보다 많이 쓰인다.

(마) 좌뇌의 중요한 기능에는 논리와 수학이 포함된다. 반면에 우측 뇌는 전통적으로 공간 지각 능력, 음악, 시각적 상상, 안면 인식 등을 관장한다.

(바)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한쪽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좌뇌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정보가 감정을 관장하는 오른쪽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때로 좌뇌가 행동에 대한 통제를 고집하고 우뇌의 지각까지 감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문제는 어조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뇌가 받아들여 처리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차갑고 딱딱한 논리로 환원된다. 다행인 것은 처음 만남에서 상대를 바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오른쪽 눈을 새로 만난 사람에게 정조준하면 당신의 좌뇌가 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사) 하지만 비록 그것이 선입견이 없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첫 만남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뇌를 무시한다는 것은 직감과 어쩌면 중요할지도 모르는 위험 신호까지 무시한다는 의미다.

23. (가)~(사)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가) - (다) - (나) - (라) - (마) - (바) - (사)
- ② (가) - (다) - (라) - (바) - (나) - (마) - (사)
- ③ (가) - (마) - (다) - (나) - (라) - (바) - (사)
- ④ (라) - (가) - (사) - (나) - (바) - (마) - (다)
- ⑤ (라) - (마) - (나) - (바) - (사) - (가) - (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각해 보면 기막힌 노릇이다. 그냥 살아가는 것만도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은가? 시름 많고 설움 많은 세상인데 돈까지 주면서 극장에 들어앉아 울다니... 허나 이것을 우는 재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는 것이 왜 재미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도 ‘글쎄...’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한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서럽게 우는 것은 가장 구박받던 며느리라는 것을 알면 우는 것이 왜 재미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나) 물론 여성 관객이 주를 이뤘고 혹평하는 사람들은 ‘고무신 관객 상대의 최루탄식 영화’라고 얕잡아 보기도 했지만, 그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 파렴치한 이야기거나 반윤리적인 재미가 아닌 다음에야 영화라는 것이, 보고 재미있으면 그만이지 그 나머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영화관에 가서 심각하고 오묘한 진리를 터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나치게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영화는 재미가 우선이라는 점은 긴말이 필요 없고, 이 영화는 그 재미를 많이 선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다) 1960년대 얘기지만 슬픈 얘기로 톡톡히 재미를 본 영화가 있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 이 영화를 상영한 극장에는 사람이 미어터졌고 압표 장수들은 한뼘을 단단히 잡았다. 얼마나 영화 관객이 많이 몰렸는지, <속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나오고 이어서 <미워도 다시 한 번 제3탄>이 나오고 그랬다. 속편들도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고 들었다.

(라) 그런데 가관인 것은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멀쩡한 사람들이 두 눈이 텅텅 부어서 극장문을 나선다. 심지어는 극장에서 나와 거리를 걸어가면서 계속 우는 사람까지도 있었다. 나도 속되기는 마찬가지여서 그 영화를 구경했다. 그리고 눈물개나 뿌렸다. 아마 5분 간격으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다. 훌쩍거리다 못해 엉엉 소리 내어 우는 소리도 극장 안에서 들을 수가 있었다. 나야 물론 근엄하게 우느라고 애를 썼지만, 손수건에다 코를 많이 풀어야 했다.

(마) 사람들은 본디 울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우리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울고 싶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원인이야 어디 있든지, 그것이 생래적(生來的)인 것이든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이든지 간에 울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술주정으로 우는 사람이 꽤 많은 것도 평소에는 억제되었던 그 욕구의 빗장이 풀려서 그러는 것이리라. 욕구의 충족은 언제나 재미가 있고 쾌감을 동반한다.

24. (가)~(마)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나) - (다) - (가) - (마) - (라)
- ② (다) - (나) - (라) - (가) - (마)
- ③ (다) - (라) - (가) - (나) - (마)
- ④ (마) - (가) - (나) - (라) - (다)
- ⑤ (마) - (나) - (다) - (라) - (가)

25. 다음 제시문의 밑줄 친 어휘 중 맥락상 같은 의미로 묶인 것은?

만첩청산 늪은 범이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이는 다 덩속 빠져 먹든 못혀고 으르릉 어형 넘노난 듯, 단산 봉황이 죽실을 물고 오동 속에 넘노난 듯, 북해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해운 간에 넘노난 듯, 구곡 청학이 난초를 물고 송백 간의 넘노난 듯, “내 사랑 내 알뜰 내 간간이지야. 어허 등등 니가 내 사랑이지야. 목락무변수여천에 창해같이 깊은 사랑, 삼오신정 달 밝은 밤 무산천봉 완월 사랑, 생전 사랑이 이러허니 사후 기약이 없을소냐? 너는 죽어 꽃이 되되 벽도홍 삼춘화가 되고, 나는 죽어 범나비 되어 춘삼월 호시절에 니 꽃송이를 내가 덩속 안고 너울 너울춤 추게 되면 니가 나인 줄 알려무나.” “화노(花老)허면 짐불래(蝶不來)라, 나비 새 꽃 찾아가니 꽃 되기 내사 싫소.” “그러면 죽어 될 것 있다. 너는 죽어 종로 인경이 되고, 나도 죽어 인경 마치가 되어 밤이면 이십팔수, 낮이면 삼십삼천, 그저 탕……탕 치거드면, 니가 나인 줄 알려무나.” “인경 되기도 내사 싫소.” “그러면 죽어 될 것 있다. 너는 죽어서 글자가 되되, 따 ‘지’, 따 ‘곤’, 그늘 ‘음’, 아내 ‘처’, 계집 ‘여’ 자 글자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되, 하늘 ‘천’, 하늘 ‘건’, 날 ‘일’, 별 ‘양’, 지아비 ‘부’, 기특 ‘기’, 사나이 ‘남’, 아들 ‘자’ 자, 종을 ‘호’ 자로만 돌아를 보자.”

- ① 늪은 범, 인경 마치
- ② 살찐 암캐, 범나비
- ③ 흑룡, 난초
- ④ 봉황, 인경
- ⑤ 청학, 꽃